

## 논술 및 면접 : 현황과 문제진단



최재훈

한양대학교 입학처장  
choijh@hanyang.ac.kr

약력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  
미국 아리조나주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통신 위성연구팀장  
현 한양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1. 머리말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학입학제도 개혁의 배경은 수능 고득점 위주의 학생을 선발해 온 종래의 대학입시 관행을 완화하여 창의력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억제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데 있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다양한 전형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활성화되어 학생부와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거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44%에 이르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부풀리기 현상과 이에 대한 대학의 반응으로 입학전형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게 반영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능 고득점 취득을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점수와 과목별 동일석차를 포함한 석차등급표기제를 도입하고 수능성적도 등급(9등급)만 제공함으로써 수능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

이다. 이 밖에도 대학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대학 정보공시제'와 '입학사정관계'를 도입하는 등 대학의 특성화된 선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교내신의 신뢰성 제고와 교교교육의 정상화, 그리고 대학의 자율적인 입시전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수능 평가가 9등급제로 바뀐에 따라 등급간 변별력은 생기자 등급 내 변별력의 문제를 대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약화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면접과 논술고사에 의존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할 때, 면접과 논술은 일종의 '본고사형 시험'과 매우 유사해질 수 있다. 본고사형 논술과 면접은 현행 정책 기조와 다르게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일선 교교에서 대학의 심층 면접과 논술에 대비한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지 않게 되면 논술과 면접을 위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미 일부 대학에서 실시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교 등급제의 철폐여부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 글에

서는 먼저 현재의 논술과 면접의 문제점과 2008년 개선안에 따른 예측가능한 변화에 관하여 논의하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2. 논술 및 면접의 현황과 문제점

면접전형은 지필고사를 통해 파악하기 곤란한 인성, 가치관, 적성, 생활태도 등 비인지적 요소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면접과 논술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 학업목적과 장래의 목적, 학업에 대한 태도와 같은 요소를 평가함으로써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학력 위주의 대학입학전형방법을 보완하고 입학 기준을 다양화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만약 일정한 조건 속에서 질문을 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교하게 고안된 면접절차와 면접표를 이용한다면 면접과 논술은 내신이나 수능점수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학생의 능력과 태도 및 가치관에 관한 정보를 상호작용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접에서 평가되는 영역은 크게 학교 및 학과 적성, 지적능력, 사고력 및 표현력, 인성 및 가치관과 마지막으로 개인생활 및 기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일 연구(정구향 외, 1998)에 의하면, 대학들은 주로 마지막 영역보다는 앞의 세 영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면접을 이용하고 있다. 학교 및 학과적성 영역에서는 주로 전공적성이 압도적으로 다수였으며, 전문성과 전공영역 소양과 입학 및 학과지원동기에 관한 평가가 그 뒤를 이고 있다. 지적 능력 및 사고, 표현 영역에 있어서는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수학능력 및 논리적 사고 능력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이나 교양상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 빈도가 낮다. 마지막으로 인성 및 가치관 영역에 대한 평가기준으로는 가치관 및 미래관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인성, 예절 및 태도에 대한 질문이 그

뒤를 이었다. 진취성, 국가관, 협동심과 같은 문항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1년 5월 '2002학년도 대학입학 면접 및 구술고사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논문(2001. 김승권)에 의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거나 대체로 다시 확인되었다. 59개 대학입학관리 처장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2001학년도 면접 시험 평가 영역 중 인성(85%)·전공적성(81%)·가치관(46%)의 순서로 반영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성 영역의 경우 협동성(97%)·말씨(92%)·자신감(90%) 등이 비중있게 다루졌으며 전공적성 영역은 전공이해 정도(85%)·학업이수계획(8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일견 이러한 면접의 원론적 목적이 평가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면접과 함께 논술 역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입학전형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1986년 본고사가 있을 때, 본고사제도의 폐해에 대한 자성으로 본고사를 대신해서 보다 간단하게 객관식위주의 평가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술이 채택되었다. 단편적 지식과 암기식 학습방법의 폐해의 문제를 보완하고 표현능력과 자기 주장의 논리적 전개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학생평가의

〈표 1〉 논술고사 활용방안

유 형	출제형식, 수준 및 경향
일반논술형	-자료제시형으로 지문이나 자료, 도표 등 제시 -대학교육 수학을 위한 사고능력과 서술능력 측정
통합교과형	-자료제시형, 1300자 내의 원고지에 작성 -수험생의 종합적인 지식과 논리적 사고능력 및 표현능력 측정 -문항 및 시간: 1문항 120분
혼합교과형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으로 출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함 -문장구성력, 논리력, 창의력, 창의적 사고력, 합리적 설득력 측정

지표로 이용되어 왔다. 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유형은 아래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일반논술형, 통합교과형, 혼합교과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체 기준과 입학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술과 면접의 중요성과 활용도에 대한 원론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대학들이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는 나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잠복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의 고교등급제의 논란도 그 이면을 들춰보면 대학에서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논술과 면접 및 서류평가의 복잡한 과정과 단계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개별 대학이 원하는 학생의 유형을 설정하고 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독자적으로 모색할 수 없는 한계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과 논술이 기형적으로 변형되어 일종의 '본고사형 시험'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필답고사 절대불가, 국·영·수 시험불가라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은 대학으로 하여금 다양한 평가 방식의 활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내신부풀리기로 인한 신뢰성의 위기와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자체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지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의거하여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교등급제 논란의 이면에는 내신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놓여있다. 내신부풀리기와 내신 내용의 빈곤성의 문제는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기준에 의한 학생평가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수능성적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수시1의 경우에는 그 의존성이 더욱 제고된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이 비인지적 자질의 평가보다는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입학시험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언어·수리논술, 면접시험에서 영어문장 및 수리문제 풀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지능력 측정으로의 변형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는 본고사형 시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종의 '본고사형 논술·면접 고사'에 대한 대학측의 요구와 이에 대한 다른 교육 관련자들의 비판적 시각의 상이한 시각으로 인해 면접과 논술을 둘러싼 논란의 지속이 예상된다. 또한 논술의 기형화와 난해도의 증가는 공교육에서 면접과 논술에 대한 '맞춤식' 지도가 지원되지 않는 한 사교육비의 지출증가는 명약관화하다.

#### 4. 개선 방향과 맺음말

논술과 면접은 그 본고사식 변형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신관리체제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학들에 남겨진 몇 가지 선택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교육부의 관심과 정책을 통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당장 학생을 선발하여야 할 대학에서는 교육지책이나마 면접과 논술에의 의존도가 더 강화될 것이다. 2008년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생이력철과 독서지도 등과 같은 질적인 평가 자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과 학생선발기준으로서의 의존도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주어진 조건에서 대학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는 면접과 논술을 보다 심화시키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면접과 관련된 가능성은 면접시간의 연장과 구조화된 면접의 준비 및 전공별 심화면접 등이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2001년 조사에 의하면 면접시간은 1명당 5분이 21명(36%)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면접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면접시간으로 인하여 평가진(주로 교수들로 구성됨)은 제한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평가해야 한다. 과도한 학생 면접 부담으로 인한 피로로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평가교수간 평가자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

되면 서로 유사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평가자의 피로감을 경감하고 심층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면접방식으로는 일방적 면접-쌍방적 면접, 구조화된 면접-비구조화된 면접, 일 대일 면접-다 대일-집단면접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현재 대학면접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면접자가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변하는 일방적 면접형식과 다수의 평가교수와 한 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진행하는 다 대 일 개인면접을 채택한 경우가 34명(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빠른 시간 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학생의 입장을 무시하게 되어 진면목을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에서 주요 대학들이 활용하고 있는 쌍방적 면접을 통해 자기홍보와 학생에게 질문 기회를 주는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평가교수의 평가준비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주의를 필요하다. 교수의 평가준비가 부실하거나 교수별 특정 능력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차이가 심할 경우 면접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시간의 연장과 함께 구조화된 면접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대학에서 꺼려하고 있다. 다단계로 개발된 정형화된 질문과 채점지침으로 구성된 표준화되고 단계화된 면접방식을 고안하면 면접자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낮은 단계의 질문에서 심화단계로의 질문은 만약 학업적성과 자질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대학에서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연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면접과 논술의 심화방법의 내용은 모집단위별로 세운 기준에 의거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및 의욕

을 가진 현재/잠재적 장래성 혹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논술과 면접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집군을 현재의 문과/이과 혹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등의 분류방식보다도 더 정교한 모집단위 구분을 한 후 해당 모집단위별로 적절한 방법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이 역시 많은 연구와 더 복잡한 관리의 부담이 요구된다.

모든 대학에서 심화된 논술 및 면접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와 학문 혹은 전문적 훈련을 받을 자질과 필요성이 있는 학생과 대학에서만 이러한 정교한 면접 및 논술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직업훈련과 중견간부의 육성을 지향하는 대학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논술 및 면접방법을 고안하여 실행하면 된다. 대학의 자율성은 본고사를 치르는 자율성보다는 자기 대학의 위치를 정확히 확정하고(positioning) 해당 위치에 적합한 인재육성과 선발의 원칙을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고등교육제 논란은 학생선발과 대학입학 관련 교육 당사자들 간의 불신으로 인한 신뢰의 위기이다. 교육에 대한 전 사회적 신뢰의 재구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현명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넓게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좁게는 학생선발의 적합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면접과 논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회적으로 공감할 만한 현명한 대안을 강구해가면서 교육에 관한, 대학에 관한, 학생선발 기준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점차 고등학교에서의 내신평가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학생의 학력 및 비학력에 대한 현재의 성취도와 발전과정 및 잠재성에 대한 교사의 진지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된다면 대학은 변형된 논술과 면접방식을 굳이 채택할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